한국문학논총 제60집(2012. 4) 139~171쪽

국민국가의 동일성 구조와 그 균열 가능성*

- 현월의 「나쁜 소문」과 「그늘의 집」 연구

이 희 원**

차 례

1. 들어가며
2. 주권자-호모사케르의 보편적 권력 프랙탈
3. 마이너리티의 새로운 자기 실천 가능성
4. 나오며

국문초록

현월은 대표적인 재일 한인 소설가이다. 그의 작품 세계는 디아스포라의 시선을 바탕으로 근대 국민국가 체제에 대한 보편적 문제의식을 형상화한다는 점에서 연구의 가치가 있다. 대표작인 「나쁜 소문」과 「그늘의 집」에는 이러한 주제 의식이 잘 형상화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이 두 작품을 통해 현월이 제시하고 있는 국민국가 체제의 견고한 동일성 구조의 실체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자신만의 실천원리를 통해 그 구조를 극복하려는 문제적 인물들의 강력한 의지에서 국민국가 체제의 완고함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7-361-AM0059).

** 동의대학교 교양교육원 강사.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에 균열을 내는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작품에서 형상화되는 재일 한인 집단촌은 주권자와 호모 사케르를 양산하는 방식으로 수직적·서열적 권력 구도를 구축한다. 이 구도는 집단촌 내부는 물론 외부에까지 촘촘하게 작동하면서 프랙탈화 되어 개인을 옭아맨다. 이는 근대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강화되고 있는 국민국가 시스템의 작동원리를 정확히 반영한다.

여기서 현월은 이 프랙탈 구조를 타파할 가능성을 집단 내 최하층민 마이너리티들의 강력한 자기원칙의 수행을 통한 기존 가치의 전복에서 찾고 있다. 「나쁜 소문」의 '뼈다귀'와 「그늘의 집」의 '서방'이 대표적 인물들이다. 이들은 주권자와 호모 사케르의 포함적 배제 관계를 수평적 관계로 해체하는 새로운 요소를 전면화한다. 이들의 행동 방식은 목적이 없고, 목적이 없기에 수단이 되지 않으며, 그렇기에 새롭다. 이러한 인물의 형상화를 통해 현월은 국민국가 체제의 권력구도가 드러내는 불합리성을 폭로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한다.

주제어 : 현월, 디아스포라, 국민국가, 권력 프랙탈, 자기원칙.

1. 들어가며

일반적으로 권력을 가진 자가 그의 힘을 어떤 방식으로 수렴·발산하는가에 따라 사회 체제의 형태는 결정된다. 근대 이후 개인들을 귀속시킨 보편적 사회 체제는 '국민국가' 시스템이다. 질서 유지의 약속을 근거로 국가가 소위 '정당한 폭력'으로서의 공권력을 독점하게 된 것이다.[1]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 사회에 대한 이해의 시작은 국민국가 체제에서 권력[2]이 공동체를 어떤 식으로 질서화하고 있는지 고찰하는

1) 공진성, 『폭력』, 책세상, 2009, 44쪽.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것에서 시작할 수 있다.

이 지점에서 디아스포라[3]는 문제적이다. 이들은 이중 국적, 이중 언어의 상황에 노출된 채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온전하게 포섭되지 못하는 개인의 혼종적·이중적 정체성을 특징으로 한다. 아감벤이 말하고 있듯 근대 국민국가의 형성 과정에서 인권은 자연 생명을 인간이 아니라 국민에로 귀속시키면서 국적이 주권의 자격증이 된 것이 사실이다.[4] 따라서 국민 범주는 모든 개인을 온전하게 포함하는 자명하고 필연적이며 자연적인 범주가 아니라 포함과 배제의 배타적 원리로 작동하는 사회적

---

2) 본 논문에서 '권력'은 아렌트 식으로 '정치의 장에서 협력과 합의를 도출하는 수단이자 그 자체로 정당한 힘'(한나 아렌트, 김정환 옮김, 『폭력의 세기』, 이후, 2008, 18쪽 참조)이 아니라, 폭력과 직결되어 있는 억압적 힘으로서의 권력을 의미한다.

3) 디아스포라(diaspora)는 근대의 노예무역, 식민지배, 지역 분쟁 및 세계 전쟁, 시장경제 글로벌리즘 등 몇 가지 외적인 이유에 의해, 대부분 폭력적으로 자기가 속해 있던 공동체로부터 이산을 강요당한 사람들 및 그들의 후손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따라서 디아스포라는 강제로 태어나고 자란 땅을 뒤로 하고 낯선 땅에 이주하여 이방인이자 소수자로서 불안하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른다.(서경식, 김혜신 옮김, 『디아스포라 기행-추방당한 자의 시선』, 돌베개, 2006, 14쪽) 결국 정은경이 이야기하듯 강요에 의해서든 자발적인 동기에 의해서든 디아스포라들은 그들이 정착하는 곳에서 소수자이자 주변인이다. 이들은 이중 정체성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긍정적'으로 규정할 수 없으며, 자신의 분열성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정은경, 『디아스포라문학』, 이룸, 2007)

4) 아감벤은 "만약 근대 국가의 토대에 자리잡고 있는 것이 자유롭고 자각적인 정치적 주체로서의 인간이 아니고, 무엇보다 먼저 인간의 벌거벗은 생명이라는 점 그리고 신민에서 주체로 이행하는 가운데 그자체로서 주권의 원칙을 부여받은 단순한 출생 그 자체라는 점을 망각한다면, 우리는 19세기와 20세기 근대 국가의 '국민적'이며 생명정치적인 발전과 소명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거기에는 출생이 즉각 국민이 되며, 이 두 용어 사이에는 어떤 간격도 없다는 허구가 내재되어 있다. 인권은 단지 인간이 즉각 다시 사라져버리는(또는 결코 그 자체로 드러나서는 안되는) 시민의 토대인 한에서만 인간에게 부여된다."고 하면서 근대 초 인권 선언들의 실상을 해부했다. 그리고 그것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오히려 강하게 작동하면서 세계 체제를 유지해 오고 있음을 언급한다.(조르조 아감벤, 박진우 옮김, 『호모 사케르-주권권력과 벌거벗은 생명』, 새물결, 2008, 251쪽)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통제 장치가 되는 셈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디아스포라의 정체성은 근대국가 국민의 그림자로 치부되던 결핍의 위치에서 벗어나 그 자체의 가치를 통해 근대성을 재고하는 출발점이자 핵심으로 부상한다. 즉 근대적 국민주권은 디아스포라라는 호모 사케르를 양산하였기에 국민의 시선이 아닌 디아스포라적 시선이 국민국가 자체를 비판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보편적인 관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재일(在日)한인은 대부분 일본 제국의 조선 침략으로부터 비롯된 자들이기에 우리의 근대성과 국가, 국민에 대한 인식틀을 고찰할 수 있는 중요한 바로미터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러한 논점은 재일 한인들의 문학을 바라볼 때에도 오롯이 유효한 문제의식이다.

재일 한인들의 문학작품은 일제 식민지시기부터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초창기에는 조선의 역사적 상황과 연동하여, 되찾아야 할 조국이나 민족 개념에 경도되어 있었다. 이러한 관점은 디아스포라 문학을 국민국가로서의 조국과 그 국문학을 강화시키는 방편으로 바라보는 입장을 고수하였기에 디아스포라의 삶을 그 자체로 인정하고 바라보는 시각이 부족했다. 그러나 1980~1990년대 이후 재일 한인 3세대가 문단에서 활동하는 시기가 되면 탈식민주의나 탈근대의 이름으로 근대 혹은 국민국가 이후의 삶을 모색하는 흐름이 대두되면서, 작품의 중심은 '민족'에서 '실존'으로 나아가게 된다.[5] 그 결과 그들의 문학 속에는 재일 한인이라는 정체

5) 이러한 문제의식을 잘 보여주는 논의로 이연숙의 「디아스포라와 국문학」(『민족문학사연구』, 민족문학사학회, 2001)과 이재봉의 「재일 한인 문학의 존재 방식」(『한국문학논총』 제32집, 한국문학회, 2002)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연숙은 국민문학의 틀 자체에 대한 재검토가 진행되는 포스트 콜로니얼 문학 연구 방향을 소개하고, 그 흐름 속에 기존에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던 하이브리드(잡종성)와 디아스포라(이산)에 적극적 가치를 부여한다. 여기서 '재일(在日)'은 "본국으로의 귀환도, 일본 사회에로의 동화도 아닌", "재일 조선인의 삶의 방식을 가리키는 것"(65쪽)으로 의미화된다. 이재봉은 디아스포라 문학에 대한 기존 연구 결과들이 대체로 "재일 한인 문학의 민족적 정체성과 일본 내에서의 차별받는 소수민족의 문학이라는 전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363쪽)는 것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재일 한인 문학이 지향하고 있는 내적인 논리와 문학적 특징을 밝히는"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성을 가지고 그들이 뿌리내리고 살아가는 '지금 그리고 여기'에 천착하여 그들이 맞닥뜨리는 문제에 대해 질문하게 된다. 유미리, 양석일, 현월, 가네시로 가즈키 등이 이러한 흐름의 선두에 선 작가들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재일 한인 2세 소설가 현월(玄月)[6]이 작품을 통해 보여주는 주제의식은 정치하게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의 작품이 보여주는 디아스포라 의식이 근대의 사회 체제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중심점으로서 성공적으로 형상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국가나 국민(혹은 민족)의 자리가 결핍된 존재로 스스로를 인식하는 디아스포라 주체는 발견할 수 없는 새로운 가능성을 담지한 주체의 형상화이다.[7] 기존의 연구에서 현월 작품에 언급되는 이 새로움은 주로 그가 한 인터뷰에서 밝힌 문제의식인 "인간의 보편성"[8]과 관련된다. 즉 많은 논자들이 현월의 작품을 다룰 때 그가 말하는 보편성의 문제를 화두로 그

(363쪽) 작업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그리고 그것을 <在日>의 의미를 수동적이지 않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미인 '재일하다'로 인식하는 재일 한인작가들의 의식을 통해 구체화한다.

6) 현월은 1965년 오사카에서 태어난 재일한인 2세대 소설가이다. 1990년대 말에 활동을 시작해 대부분의 재일한인 3세대와 같은 시기에 창작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문학적 경향도 3세대와 같이 묶이고 있다. 이처럼 재일 한인 문학사에서 작가의 태생 시기의 구분과 작품의 특성에 따른 구분이 일치하지 않는 면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문재원의 「재일코리안 디아스포라 문학사의 경계와 해체-현월(玄月)과 가네시로 가즈키(金城一紀)의 작품을 중심으로-」(『동북아문화연구』 제26집,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1) 9~11쪽 참조

7) 많은 논자들이 이 새로움을 3세대 문학가들의 특징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특히 구재진은 "'민족' 중심의 경향에서 '실존' 중심의 경향"(구재진, 「국가의 외부와 호모 사케르로서의 디아스포라-현월의 「그늘의 집」 연구-」, 『비평문학』 제32호, 한국비평문학회, 2009, 8쪽)으로, 문재원은 이를 "과거의 기억이나 저 곳에 대한 상상보다 현재 거주지에서 자기 정체성을 어떻게 구성해나갈 것인가의 문제를 고민하고 문학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문재원, 앞의 논문, 6쪽)음에 대해 언급한다.

8) 현월은 한 인터뷰에서 "다양한 재일 동포의 삶의 모습을 다양한 각도로 그려내되, 재일 동포의 특이성에 집착하지 않고 인간의 보편성을 그려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히고 있다.(작가 인터뷰, 「인간의 보편성을 그리고 싶다」, 현월, 『그늘의 집』, 문학동네, 2000, 227~228쪽)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의 작품에 임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은 이 보편성에 대해 언급하는 수준을 넘어서지는 않고 있는 실정이다.[9] 이런 입장에서 유의미한 논의는 구재진과 문재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구재진은 「그늘의 집」의 재일 한인 집단촌이 일본의 내부에 존재하는 외부임을 밝히고 국가 체제가 소수자들에게 가하는 폭력성과 소수자의 고통에 대한 보편적 의미를 도출하고 있다.[10] 그리고 문재원은 현월이 재일(在日)의 특수한 자리에서 모방적 폭력의 틀로 우리사회의 기원적 폭력을 보여준다는 점을 들어 그가 가진 보편의 문제를 해석한다.[11] 그러나 전자의 경우 작품 해석상 각각의 인물들을 '재일 한인'이라는 이름으로 묶어버려 그들 각자가 가진 성격과 의미의 결을 제대로 짚어내지 않고 있다. 그리고 후자의 경우에는 논의의 핵심어인 '폭력'과 '소문'에 대한 논점과 그것들의 연결지점이 불명확하여 현월 작품의 의미가 분명하게 부각되지 않는 편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바탕으로 하여 현월의 대표작 「나쁜 소문」과 「그늘의 집」에서 작가가 제안하는 '인간 보편'의 문제를 구체적 작품 분석을 통해 집중적으로 밝혀보고자 한다.[12] 이에 대한 탐색은 디아스

9) 현월이 제안한 '인간 보편의 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논자들이 지적을 하는데, 황봉모는 현월이 말하는 보편성을 폭력성에 집중하여 서술하는데 디아스포라 사회의 특성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고 있다.(「현월 「그늘의 집」-욕망과 폭력-」, 『일어일문학연구』, 한국일어일문학회, 2005; 「현월의 「나쁜 소문」-료이치의 변화과정 추적을 통한 읽기-」, 『일본어교육』 제35집, 한국일본어교육학회, 2006) 장안순과 장사선도 현월이 작품을 통해 보여주는 폭력을 인간의 폭력적 본성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이 폭력의 내적 의미에 대해 깊이 천착하지는 않고 있다.(장안순, 「현월의 「나쁜 소문」-폐쇄된 공동체에서 욕망과 폭력-」, 『일본언어문화』, 한국일본언어문화학회, 2009; 장사선, 「재일 한민족 소설에서의 폭력」, 『현대소설연구』 제45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10) 윤정화는 「재일한인작가의 디아스포라 글쓰기 연 구」(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에서 뼈다귀의 폭력적 행위가 다수에 대항하여 살아가는 소수의 삶의 방식 중 하나라고 하여 이를 보편화·일반화한다.(202쪽) 그러나 소수자의 삶이 보편화로 연결되는 것은 모순이며, 뼈다귀의 폭력은 그의 가족을 파멸시킨다.

10) 구재진, 앞의 논문, 10쪽.

11) 문재원, 앞의 논문, 13~14쪽.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포라를 결핍이 아니라 충만한 실재 그 자체로 볼 수 있는 하나의 전망으로 제시하고 근대 국민국가의 실체를 보여주는 근본적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먼저 작품에서 형상화되고 있는 인물들 간의 관계를 통해 근대 국민국가 체제가 하나의 정치적 장치로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고찰하고, 이어서 그러한 작동방식을 초과하고 있는 주요 인물들의 행동을 통해 근대성을 넘어서는 가능성을 모색해보기로 한다.

2. 주권자-호모사케르의 보편적 권력 프랙탈

「나쁜 소문」과 「그늘의 집」이 형상화하고 있는 공간은 공통적으로 재일 한인들이 밀집해 있는 집단촌이다. 「나쁜 소문」은 조선인들이 거래하는 시장과 조선인 학교가 있는 마을, 그리고 그 변두리 지역이 공간적 배경으로 설정되어 있고, 「그늘의 집」에서 형상화된 바라크는 70여년 전 일제시대에 일본에 건너온 조선인들이 만든 집단 주거지로, 겉보기와는 달리 그 전체 구조를 상상하기 힘들 만큼 크고 복잡하다. 세월이 흘러 조선인들이 바라크를 떠나자 이제는 중국인 이주노동자들이 그 빈 곳을 채우고 있다. 이처럼 이곳은 재일 한인을 포함하여 일본 사회 내 종족적 마이너리티들이 모여드는 은폐와 소외의 공간이다.

그런데 이곳에서 인물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관계의 양상을 살펴보면

12) 「나쁜 소문」은 1999년 『문학계』 5월호에 실렸고, 「그늘의 집」은 같은 해 11월 『문학계』에 발표되어 아쿠타가와상을 수상했다.(황봉모, 「현월(玄月) 문학 속의 재일 제주인」, 『외국문학연구』 제42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2011 참조) 시기상 이 두 작품은 현월의 초기작에 해당하나 작품 자체로서의 완결성이 뛰어나고, 그 주제 의식이 분명하며 이후의 작품들과 깊은 친연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대표작으로 꼽을 수 있을 만하다. 그리고 본고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인간 보편의 문제'가 가장 잘 드러나 있기도 하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이러한 공간 배치가 각 개인들을 일본에 억압당하거나 저항하는 디아스포라라는 공통의 이름으로 묶는 것이 아니라 그 내부를 수직적 서열의 계층관계로 파편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서열화의 추동력은 국민국가 내에서 우리가 익숙하게 접할 수 있는 권력 구조의 기준인 자본과 권력적 힘 등의 논리이다. 국가와 디아스포라 집단 간의 대립구도가 아니라 디아스포라 집단 내부의 해부라는 점은 이 작품이 디아스포라적 공간의 특수성보다는 인간 사회의 어떤 보편적 면모에 대한 탐구와 연결되어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즉 이러한 지점은 디아스포라가 근대 국민국가의 그림자로서 출현하게 되는 것에 대한 비판지점을 놓치지 않으면서 동시에, 이 집단의 내부 체제를 고찰하여 근대의 모든 사회가 공통적으로 갖는 체제유지방식의 문제에 대해 질문하고 있는 것이다.

「나쁜 소문」에서 배경이 되는 마을은 「그늘의 집」의 바라크처럼 물리적으로 은밀하고 폐쇄적이지는 않지만 공권력과 폭력, 금력 등에 의한 위계서열의 관계가 확고하게 고착되어 폐쇄적으로 구성된 곳이다. 서열의 최상층에는 일본 정부 공권력을 표상하는 경찰력과 교도소, 학교가 있어 마을 사람들에게 절대적 권력으로 존재한다. 그리고 돈 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는 마을의 일본인 유지 '이와타'는 그가 가진 금력으로, 포악한 행실로 유명한 쌍둥이 '양씨형제'는 폭력적 힘으로 공권력의 제재 하에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가진다. 그 아래에 다수의 마을 사람들이 놓여 있으며, 서열의 최하층에는 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소외되어 일종의 '불가촉천민'처럼 존재하는 '뼈다귀'와 그 일족이 있다. 서열의 상위에 있는 자들은 하위에 있는 자들 위에서 군림하고 횡포를 일삼으며, 하위에 있는 자들은 적당히 타협하고 순응하여 권력자들의 폭력이 자신에게 향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 상호작용 속에서 폭력성은 자가증식하며 그 억압적 메커니즘을 사회 체제화 하는 것이다. 작품에서는 이러한 힘과 권력의 서열 관계가 사람들을 훈육하여 그들에게 내면화되는 과정을 양씨형제들을 통해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양씨형제는 어릴 때부터 싸움이 나면 사람을 칼로 찌르고 때리는 등 예사로 폭력을 휘둘러 소년원을 수시로 드나들던 마을의 골칫거리였다. 폭력을 휘두를 때 그들은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예외적 존재로서 권력자이자 주권자였다.[13] 그랬던 그들이 더 이상 폭력을 휘두르지 않고 공동체의 적절한 구성원이 되는 계기는 그들을 뛰어넘는 물리적 폭력에 맞닥뜨린 사건이다. 한창 폭력을 휘두르며 겁낼 것이 없던 그들은 뻐다귀가 소년원에 간 사이 그의 여동생에게 매춘을 시켜 돈을 벌었다. 이때 그녀의 소문이 퍼지면서 그녀를 스카웃하기 위해 큰 도시에서 '중절모자를 쓴 남자'가 왔는데, 그는 양씨형제나 뻐다귀의 여동생이 매

13) 아감벤은 벌거벗은 생명(호모 사케르, 살해 가능하되 희생물로 바칠 수 없는 생명. 따라서 호모 사케르는 법적 주체로서도, 종교적 주체로서도 포함되지 못하는 상태에 놓인 존재)을 정치화하는 '포함적 배제'의 과정이 근대(성)의 결정적 사건이라고 말한다. 이 과정에서 정치는 인간이 언어를 통해 자신에게서 벌거벗은 생명을 분리해내고 그것을 자신과 대립시키는 동시에 그것과의 포함적 배제 관계를 유지하는 생명체로서의 속성의 결과물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인간은 동지와 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천명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기 내면에서 사회 체제의 내부로 들어갈 수 있는 주체로 자신을 구성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관계되는 작업이 되며, 따라서 정치의 자리에는 개인들의 자발적 복종과 권력에의 지향이 교차되는 곳이기도 한 것이다. 이때 작동하는 논리가 무언가를 배제시킴으로써만 그것을 포함하는 예외의 구조이다. 한 집단 내에서 법을 정립·정지시킬 수 있는 법 밖에 위치한 자가 주권자라면, 집단내에서 배제되는 방식으로 포함되는 자가 호모 사케르인데, 이 두 존재는 입장은 다르지만 동일한 구조로 대칭적 형상을 하고 있다. 이 실체 없는 두 형상의 투쟁이 개인의 내부에서 작동하며 자신이나 타자를 주권자나 호모 사케르로 인식하게 되는데, 결국 그것은 잠정적일 뿐 실체적이지 않다. 실체가 아님에서 오는 불안은 결국 모든 사람이 잠정적으로는 자신을 호모 사케르로 인식하는 길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이 복잡한 과정의 내부에 있을 때 개인은 권력 체계를 확정·강화하면서 체제를 유지시키게 된다.(조르조 아감벤, 앞의 책 참조) 많은 논자들이 아감벤의 호모 사케르 논의를 활용하는데, 대부분은 호모 사케르나 주권자를 적과 동지의 개념으로 이해하거나 구체적으로 분리되어 실재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분석틀에 치우쳐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아감벤 논의 이해의 시작은 개인의 내면에서 양가적으로 움직이는 논리임에 주의해야 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지점에서 호모 사케르를 이해하고자 한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춘을 하기에 너무 어리다는 사실에 놀라고, 형제들에게 이 일을 그만두라고 훈계한다. 형제는 화가 났을 때 언제나 그러했듯이 그를 공격하는데, 그는 형제를 단숨에 제압해버린다. 한 번도 경험해본 적 없는 그 힘에 형제는 어떠한 저항도 하지 못한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온다.

> 도대체 왜 그 남자를 뒤에서 덮치지 않은 걸까? 둘이 동시에 덤벼들어도 당할 수 없는 상대라면 돌이라도 주워서 뒤통수를 내리치면 됐을 텐데, 나는 동생을 배신한 거다. 당하는 게 두려워서 그랬을까? 결과를 미리 예측해서 그랬을까? 만일 그랬다면 난 차라리 죽는 게 낫다!
> 형은 우두커니 선 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나쁜 소문」[14], 96쪽)

그들이 가진 폭력은 그 누구도 말리지 못하는 절대적인 무기이자 그들 자체로서 그들이 스스로를 인식하고 사람들과 관계하는 핵심이었다. 그러나 이 남자의 힘 앞에서 그들의 힘은 완전히 꺾여버린 것이다. 물리적 폭력 앞에서 약자로 서게 되는 이 한 번의 강렬한 경험으로 그들은 그들을 주권자로 만들어주었던 물리적 폭력이라는 존재 근거를 잃어버리고 호모 사케르가 되는 공포와 마주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 일로 소년원에 다녀온 뒤 이들은 다시 한 번 '폭력'을 획득하게 되는데, 그러나 그것은 과거처럼 완벽한 권력자가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폭력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회 체제 내에 안정적으로 귀속되는 일종의 교정된 폭력이라 할 수 있다. 그 교정은 억압적인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설득적으로 그들의 내면을 파고든다. 이들은 소년원에서 출소한 후 그들 없이도 그들이 벌였던 악행이 조금도 변함없이 마을 사람들에 의해 지속되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그들이 소년원에 가 있는 동안에도 뼈다귀의 여동생은 소년원에서 돌아온 뼈다귀의 종용으로 여전히 매춘

14) 현월, 신은주・홍순애 옮김, 『나쁜 소문』, 문학동네, 2002. 이하 작품 인용시, 본문에 제목과 페이지만 표기함.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을 하고 있었고, 양씨형제의 아버지를 비롯한 마을 남자들은 여전히 그녀를 찾아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 형제는 아버지가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잠시 걷게 한 후에 바짝 뒤에 따라붙었다. 그들은 말없이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버지는 눈을 내리뜨고, "다들 하는데 왜 그래?"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중략)…
> 우리가 씨를 뿌리고 가꿔서 열린 열매를 아버지가 몰래 먹은들 어떻단 말인가? 애당초 우리의 응어리진 감정이 도리에 어긋나는 게 아닐까? 지금 이대로 '모두가 행복'한 게 아닐까?
> 형제는 아버지 뒤를 터벅터벅 따라가면서 세상은 이런거야, 라고 서로 중얼거렸다.(「나쁜 소문」, 104쪽)

그들이 뼈다귀의 여동생을 만나고 오는 아버지와 맞닥뜨려서 보게 된 세상은 아버지가 딸 같은 여자의 몸을 사고, 오빠가 친 여동생에게 매춘을 종용하며, 그것이 사람들로부터 묵인되고 수용되어 만인의 행복이 담보되는 파렴치한 곳이다. 과거에 그들은 자신들이 속한 세계는 폭력의 세계이고 아버지가 속해 있는 어른들의 세계는 질서의 세계라고 생각해 왔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보게 된 실상은 이 두 세계가 결코 다른 세상이 아니라 같은 구조를 하고 같은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중절모를 쓴 남자'에게 받은 타격으로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폭력의 무력함을 보았고 절망하여 그것을 버리려 했다. 그러나 그 타격은 이제 그들이 좀 더 큰 힘의 논리 앞에 복종하기만 한다면 그들의 삶이 폭력도 악도 아니라는 가르침으로 선회한다. 그들을 감시하고 처벌하여 자숙하도록 종용했던 아버지나 소년원도 결국에는 이처럼 폭력적인 현실의 일부이며, 다만 질서정연한 방식으로 나열되어 있는 것임을 확인했을 때 그들이 아무런 거부반응 없이 '갱생'을 맹세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 갱생은 실상 갱생이 아니라, 사회의 권력 구도에 자발적으로 복종하여 획득한, 즉 사회화의 과정을 거친 폭력의 획득 과정이다. 이제 그들은 스스로가 '차라리 죽는 게' 나은 호모 사케르에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적당히 체제에 적응할 수 있는 주권자, 즉 호모 사케르를 내면화 한 채 주권자로서의 가능성을 담지한 주체로 거듭난 것이다.

> 그들은 가게에서 손님 비위를 맞춰주기도 하고 공손히 머리를 숙이기도 하고 자기 가게 앞뿐만 아니라 옆의 수육가게 앞까지 쓸어주기도 해 사람들이 감탄하게 했다. 그러나 본인들은 미안하지만 자신들이 본질적으로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가게에서 일하게 된 이래 스물여덟 살이 된 현재까지 거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것이 더욱더 기적으로 여겨졌던 것이다.(「나쁜 소문」, 106쪽)

이들의 폭력성은 공동체 질서와의 상동성 때문에 아무런 불협화음 없이 현실 속에서 적절하게 조화되고 있다. 양씨형제가 식육점 점원으로서 훈육되고, 질서 잡힌 세계를 승인하게 되는 것은 그들의 폭력이 공동체의 규칙이라는 이름으로 다수의 편에 섰기 때문이다. 이제 그들의 힘은 그것을 휘두를 수 있는 대상과 아닌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여 공동체 질서의 핵심인 서열 관계 속에 안전하게 귀속되었다. 이는 자발적 복종에 의해 호모사케르와 주권자의 형태로 구축·강화되는 근대의 지배 체계에 개인들이 내적으로 종속되는 양상 자체이다.

「그늘의 집」에서 이와 유사한 인물은 '나가야마'이다. 그는 뛰어난 사업수완을 통해 집단촌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킨 입지전적 인물로, 집단촌 내 권력 관계 서열의 최고 위치를 차지한다. 그는 이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집단촌 사람들의 우두머리로 행세하며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 마을 사람들로부터 용인된 인물, 즉 주권자이다.

> 서방은 (중략) 작은 신발 공장을 시작했을 때부터 집단촌은 나가야마의 소유물이었다는, 울분도 체념도 아닌 건조한 상념에 사로잡혔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 남자들 또한 여전히 나가야마의 '소유'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데 대해 때로는 화를 내고 때로는 체념하고 있는 것이다.(「그늘의 집」[15], 50~51쪽)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집단촌 사람들이 모여 만든 친목 야구단 '매드・킬' 식사 모임에서 젊은 사람들은 나가야마의 여색이 미치지 않은 집단촌 여자는 자신들의 어머니를 포함하여 아무도 없었을 것이라고 농담처럼 떠든다. 인용문은 이때 '서방'이 느끼는 상념이다. 사람들은 나가야마의 여색을 불편해하기는 해도 그것이 나가야마에 대한 제재나 비판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젊은이들을 보며 서방은 40년 전 나가야마가 전성기를 누리던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여전히 그가 집단촌의 남자들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여자를 성적 대상으로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독거노인을 찾아오는 봉사로 서방을 찾아오는 일본여성 '사에키'를 나가야마가 무턱대고 강간할 수 있는 것도 그가 바로 집단촌의 나가야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나가야마는 일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바라크를 떠나서는 정치적 주권자로 군림하지 못한다. 그는 20여 년 전부터 귀화해서 시의원에 출마하고 시청에 많은 돈을 기부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연속해서 네 번 낙선했다. 바라크를 중심으로 한 공간에서 그는 특별한 존재이지만 그곳을 벗어났을 때 그는 주권자 일본인들로부터 배제된다. 중국인들의 집단린치 사건으로 경찰이 찾아왔을 때에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하는 그의 모습에서 이는 극단적으로 확인된다. 이런 점에서 나가야마는 주권자이면서 동시에 호모 사케르인 근대 국민들의 정치적 입장이 새겨진 인물인 것이다. 한 집단의 구성원으로 훈육된 자들은 자신이 그 속에 안정적으로 포함되기를(주권자가 되기를) 바라고, 이 의식과 연동하여 집단으로부터 철저히 배제당한 존재(호모 사케르)를 상정함으로써 자신은 그 속에 안전하게 포함되어 있음을 인식하려 한다. 따라서 이들의 의식 속에서 주권자와 호모 사케르는 동전의 양면처럼 공존하면서 서로의 정체를 강화시킨다.[16] 그래서 스스로를 주권자라 인식하는

15) 현월, 신은주・홍순애 옮김, 『그늘의 집』, 문학동네, 2000. 이하 작품 인용시, 본문에 제목과 페이지만 표기함.

16) "주권자와 호모 사케르는 법질서의 양극단에 위치한 두 가지 대칭적인 형상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자에게는 호모 사케르가 될지 모른다는 것에 대한 공포가, 호모 사케르에게는 주권자에 의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존재하는 방식으로 서로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나가야마는 바로 이러한 상황을 온 몸으로 구현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나가야마 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관계구도는 작품에 등장하는 '집단린치'를 통해 다시 한 번 강화된다. 집단린치는 서방의 아들 '고이치'가 동경의 학생 집회에서 반동으로 몰려 집단린치로 죽임을 당한 사건, 젊은 시절 '숙자'가 곗돈을 들고 도망치려다 잡혀 마을사람들로부터 집단린치를 당해 죽음의 문턱까지 간 사건, 중국인 이주민들 중에 지하은행의 돈을 훔쳐 달아나다 잡혀온 자를 중국인들이 엉덩이 살을 떼는 집단린치를 가한 사건 등 세 번 등장한다. 이 집단린치는 일본인, 조선인, 중국인 등 민족을 막론하고 공동체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거나 규칙을 어긴 자에게 쏟아지는 극단적인 폭력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다.[17] 집단의 특성과 규칙에 어긋난다하여 이

로서,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으며 서로 결합되어 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을 잠재적인 호모 사케르들로 간주하는 자가 바로 주권자이며, 그(문맥상, 앞에 나오는 주권자가 아니라 불특정한 누군가를 의미-인용자)를 향해 모든 사람들이 주권자로 행세하는 자가 바로 호모 사케르이다."(조르조 아감벤, 앞의 책, 178~179쪽) 이 지점에 대해 김태환은 "주권자와 호모 사케르는 이런 의미에서 상대적이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주권자에게 그의 백성은 모두 호모 사케르이고, 호모 사케르로 낙인찍혀 공동체에서 추방당한 사람에게는 모든 타인이 주권자다."라 하여 주권자와 호모 사케르의 논의가 신체를 가지게 되었을 경우 벌어질 수 있는 사태를 잘 설명하고 있다.(「예외성의 철학-조르조 아감벤의 『호모 사케르: 통치 권력과 벌거숭이 삶』」, 『문학과 사회』 통권 제67호, 문학과지성사, 2004, 1288쪽)

17) 구재진은 숙자에게 행해진 집단린치와 중국인 도둑에게 행해진 집단린치를 모두 폭력적 희생제의의 형태로 집단촌의 내부 결속을 이끌어내는 희생제의라고 본다.(구재진, 앞의 논문, 15~16쪽) 반면 문재원은 숙자를 향했던 집단린치와 중국인들 사이에서 벌어진 집단린치가 효과적인 측면에서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즉 전자에서는 공동체가 유지되었지만 후자에서는 공동체가 와해될 위기에 처했고, 이것은 집단린치가 더 이상 집단촌을 유지시키는 수단이 되지 못하는 "거주 공간의 분화와 소멸을 암시"(문재원, 앞의 논문, 12~13쪽)하는 것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처럼 강렬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실상 사건 해결의 측면에서 볼 때 과잉이고 잉여적이다. 학생 운동의 성격에 맞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곳에서 나가도록 하면 될 것이고, 돈을 훔친 자가 있다면 돈을 되갚도록 하면 된다. 그러나 집단은 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죽음을 맛보게 까지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장된 폭력을 이해하기 위해 주목해야 할 지점은 공동체의 규칙에 어긋난 자에게 집단린치를 가하는 자의 불안과 공포이다. 숙자의 집단린치 사건에 대한 일련의 묘사에서 이는 잘 드러난다.

> 남자들은 숙자가 쓰러지려고 할 때마다 찬 우물물을 머리 위로 뒤집어씌우고, 여자들은 죽도로 등이나 어깨를 쿡쿡 찌르고 때렸다. 사람들은 담담하게 마치 떡을 찧듯 리듬을 살려가며 되풀이했다. 광기가 개입될 여지는 없었고, 사람들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해내고 있을 뿐이었다. 모두가 무표정했으며, 일어서는 모습이나 눈가에서 피곤함을 엿볼 수는 있었지만, 자기 차례가 왔을 때 빠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
> 수십 분 후, 빈사 상태에 빠진 숙자가 갑자기 얼굴을 들고,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퍼붓기 시작했다. (중략) 주문이 끝도 없이 계속되면서 분위기가 점차 고조되자 여자들 중에는 귀를 막고 움츠려 앉거나 울면서 골목으로 도망치는 사람도 나타나기 시작했다.(「그늘의 집」, 63쪽)

숙자를 처리하는 마을 사람들의 모습은 분노에 찬 응징이나 정의의 구현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그들은 오히려 지친 표정으로 자신의 임

이다. 결과적으로 그러한 이해가 가능하나, 권력자의 폭력적 힘이 소수자들에게 얼마나 가혹한지를 좀 더 강하게 드러내기 위한 변화로 읽어도 좋을 것으로 보인다. 소수자들의 집단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듯이 언제나 권력자의 폭력에 의해 와해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구재진은 집단린치가 집단촌 내에서 국가의 법을 대신하는 과잉 모방이라고 지적하며 집단촌의 원칙과 국가의 법을 구분하고 국가의 법에 합리성의 성격을 부여한다. 그러나 실상 고이치를 죽음으로 몰고 간 집단린치가 이루어진 공간은 일본 국가의 공간이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국가의 법과 집단촌의 원칙 모두 그것을 지키기 않는 자들을 폭력적으로 제거한다는 점에서는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무를 감당하는 듯한 모습이다. 게다가 기절했던 숙자가 깨어나 뜻 모를 저주를 퍼부을 때 이들은 두려움에 도망을 치기까지 한다. 이들은 분명 숙자를 얼마든지 처결해버릴 수 있는 권력을 쥔 주권자의 입장에서 모여 무자비한 폭력을 그녀에게 휘둘렀다. 그러나 그들은 그녀에 대해서 알 수 없는 두려움을, 그들이 행하는 집단린치에 대해서는 막연한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이는 호모 사케르의 상정을 통해 자신이 주권자임을 확인하는 잉여적 폭력을 휘두르던 마을 사람들이 숙자의 얼굴에서 자신이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느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숙자의 처결에 공모하는 것은 사람들 각자의 순수한 자유의지라기보다는 주권자-호모 사케르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자발적 복종을 서로 확인하는 폭력적인 절차인 것이다. 결국 마을 사람들은 나가야마에게는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숙자의 고통받는 신체를 통해서는 공동체에서 배제되었을 때 자신이 겪어야 할 고통을 감지하는 방식으로 권력과 권력자를 승인한다. 그리고 그 폭력이 만든 처참한 결과에 대한 죄책감을 갖는다. 이 모두가 바로 주권자-호모 사케르의 수직적 구도에 묶인 불안한 존재들이 세상과 관계하는 양상인 것이다. 다른 두 번의 집단 린치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현월이 작품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공동체 구성원의 관계구조는 디아스포라들의 집단촌 내부든, 그들이 속해 있는 국가와 관계하는 방식에서든 권력을 중심으로 한 자발적 서열구도로 완벽하게 질서 잡힌 프랙탈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이것이 곧 근대의 통치구조를 존재 가능케 하는 구심력이다. 그의 작품이 공동체 구성의 측면에서 오늘날을 사는 인간이 당면한 보편의 문제를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디아스포라 집단촌 내부를 중심으로 그 속의 허와 실을 형상화했기에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디아스포라 범주는 호모 사케르와 잠정적 호모 사케르로서의 주권자들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스펙트럼으로 자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다시 질문을 던질 수 있다. 디아스포라를 인식적 스펙트럼이라 상정한다면, 그래서 디아스포라를 통해 국민과 국가라는 족쇄를 넘어서고자 한다면 어떤 삶이 가능할 것인가. 즉 주권자-호모 사케르의 틀에서 벗어나는 가능성을 디아스포라적 인식을 통해 획득할 수는 없을까. 여기서 우리는 현월이 형상화 한 주요 인물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 「나쁜 소문」의 뼈다귀와 「그늘의 집」의 서방은 개인의 자발적 복종이 만든 사회 체제를 거부하는 급진적인 양상을 구현하고 있다. 즉 이들은 국민 범주에 자기 존재를 저당잡히지 않는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내면적으로 훈육된 근대적 공동체 의식이나 국가관, 권력의 문제를 재배치할 수 있는 가능성의 일단을 보게 된다.

3. 마이너리티의 새로운 자기 실천 가능성

작품의 주요 인물들은 아감벤이 예외성의 논리로 풀어낸 사회 체제와 구성원의 암울한 역학 관계를 넘어서고자 한다. 「나쁜 소문」의 뼈다귀와 「그늘의 집」의 서방이 그들이다. 이 둘은 공동체 서열 구도의 최하층에 존재하는 마이너리티들이다. 작가는 체제에 순응해도 얻을 것이 없는 이들에게서 오히려 전혀 새로운 역동성을 발견하고 있는 것이다. 앞 장에서 언급했듯 「나쁜 소문」의 뼈다귀와 그 일가족 전체는 불가촉 천민이고 멸시받는 자들이다. 뼈다귀는 닭의 뼈까지 씹어먹는다고 해서 별명이 뼈다귀인데 막노동을 하고 있고, 그의 여동생은 몸을 판다. 노파인 어머니는 특별한 존재감이 없으며, 재일 한인이라는 것에 대한 열등감으로 똘똘 뭉쳐 폭음과 가족에 대한 폭행을 일삼던 큰형은 그의 아들 료이치를 뼈다귀에게 맡기고 사라진다. 그리고 료이치는 학교를 다니다 그만둔 채 집에서 지낸다. 이들은 사람들의 무시를 감내하며 되도록 조용하게 지낸다. 「그늘의 집」에 등장하는 서방은 바라크에서 68년째 지내고 있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다. 아내가 나가야마의 공장에서 팔이 잘려 과다출혈로 죽은 후부터는 일도 하지 않은 채 그 보상금으로 삶을 연명한다. 아무런 힘도 능력도, 그리고 욕심도 없이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살아갈 뿐인 그를 사람들은 바라크의 '살아있는 화석'[18]이라 부른다.

그러나 이들 뼈다귀나 서방이 단지 사람들로부터 동정이나 멸시만 받는 존재는 아니다. 이들은 스스로의 계층적 한계를 초과하는 역동적 면을 가지며, 권력적 폭력의 자기 증식 구조와는 다른 그들만의 법칙을 통해 독특한 자기 정체성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뼈다귀의 독특하고 고유한 정체성의 지점은 그가 행사하는 폭력의 양태와 관련된다. 앞서 우리는 이 작품의 등장인물인 양씨형제들이 휘두르는 폭력이 그 본질은 전혀 변하지 않았지만 보다 큰 폭력 앞에 순응함으로 해서 사회 체제 속에 안착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반면 뼈다귀의 폭력은 체제 속에 전혀 흡수되지 않은 채 사람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되는 독특한 구조를 갖는다.

> 동네에서는 이삼 년에 한 번, 어떤 사람은 일 년에 두서너 번이라고 우기지만, 흉측한 사건이 일어났다. 그때마다 술집에 드나드는 입이 거친 건달들은 재미있어하며 뼈다귀와 관련시키려고 했다. 그러다보니 점점, 따로 범인이 밝혀진 사건인데도, 뼈다귀의 그림자가 달라붙은 채 안 떨어져 두려움에 술이 확 깨고 마는 것이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나도, 아무리 사람들이 뼈다귀가 한 짓이 틀림없다고 확신을 해도, 뼈다귀는 열 여덟 살 때 저지른 폭행 사건을 빼고는 한 번도 꼬리가 잡힐 만한 증거를 남기지 않았다.(「나쁜 소문」, 10쪽)

18) 구재진은 서방을 아감벤이 말하는 '살아있는 죽은자', 즉 정치적 신체로서의 능력이 없는 자로 이해한다.(구재진, 앞의 논문, 20쪽) 분명히 그런 측면이 있지만, 작품 전반에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질문하기를 멈추지 않는 유일한 인물은 바로 서방이다. 그런 측면에서 서방은 무능한 신체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강렬한 생명력과 자기 인식의 회로를 가진 자이다. 이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계속 논증하고자 한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사람들은 뼈다귀를 멸시하지만 한편으로는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 그를 흉측한 폭력과 관련시키며 두려워하기도 한다. 실제로 그가 범인이 아님을 알아도 모골이 송연한 귀신같은 폭력 사태는 뼈다귀와 연결되는 것이다. 이는 그가 피가 뚝뚝 흐르는 짐승의 머리를 침실의 천정에 달아놓았다거나, 시체의 사타구니를 잘라 그 입에 물려놓았다는 식의 소름끼치는 일을 벌였다는 소문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는 자해를 하여 사람들을 기겁하게 만들거나, 훔친 닭의 머리를 잘라 우편함에 밀어 넣고, 고양이를 밟아 죽이는 일을 벌인다. 이처럼 기묘하게 음침한 그의 폭력은 그에게 굴욕감을 준 대상에 대한 보복으로 행사되며, 공권력의 눈을 피하여 반드시 실행된다는 규칙에 따라 이루어진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뼈다귀에게 굴욕감을 직접 안겨주려 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불쾌하고 공포스러운 복수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뼈다귀의 폭력은 마을사람들에게 일종의 잔인한 전설로 독자적인 성격을 부여받는다. 한 집단 내 마이너리티로서 공권력의 법체계 내에서 아무런 목소리도 내지 못하는 뼈다귀이지만 그는 그만의 법체계를 스스로 만들고 유지하면서 그 속에서 확실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으며 그가 속한 공동체 구성원이 그 원칙에 대해 존중 아닌 존중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늘의 집」 서방의 경우 역시 공동체 내의 언어로는 설명이 안되는 독특한 정체성을 갖는다. 그는 조선인의 핏줄을 가지고 있지만 갓난아기 때부터 일본에서 살았기 때문에 조선의 언어나 문화는 잘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일본어를 사용하고 일본 내에서 평생을 살아왔지만 일본인이 아니고, 조선인의 핏줄을 가지고 있지만 조선인이라는 소속감의 정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 어느 국가도 그를 국민으로 포함하지 못한다. 이러한 그의 무국적성은 태평양 전쟁에 참전하여 잃은 한쪽 팔로 구체화된다. 그는 일본군으로 참전하여 한 쪽 팔을 잃었다. 그러나 그는 혈통적으로 일본인이 아니기에 잃어버린 팔에 대한 국가 배상을 받아내지 못했고, 실상 전쟁에서 상대편과 싸우다 팔을 잃은 것이 아니라 상사의 불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법 행위를 돕다가 한쪽 팔을 잃은 것이기에 일본에 국가 배상을 요구하기에는 스스로가 난처한 생각이 들기도 한다. 한편 조선인이라는 정체성을 강하게 찾고자 하는 그의 아들 '고이치'로부터는 조선의 적국인 일본을 위해 참전한 '민족적 반역자'로 지탄받는다.[19] 그러나 서방의 입장에서 볼 때 당시에 그가 귀속된 국가는 일본이었기에 일본군으로 전쟁에 참전한 것이 민족적 배신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고이치에게 그 사실은 전혀 이해받지 못한다. 즉 그의 잘려나간 팔은 그에게 참전자라는 기준에서도, 민족이나 국민의 기준에서도 명쾌하게 해명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방은 자신의 입장이 어느 지점인지 상대방에게 주장하고 강요하지 않는다. 기껏해야 얼버무리듯 자신의 이야기를 할 뿐이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특정 국가에 귀속시키려 하지 않은 채 바라크가 그의 자리임을, 그는 바라크 사람일 뿐임을 강조한다. 이러한 입장은 대부분의 집단촌 사람들에게 바라크가 돈을 벌거나 일본으로 귀화를 하는 방식으로 언젠가는 떠나야 할 곳인 것과는 많이 다른 서방만의 관점이다.

서방이 마을 사람들로부터 '살아있는 화석'이라 불리는 것은 그가 집

19) 이와 관련된 부분으로 작품을 잠시 인용해보겠다.
"어째서 전쟁이 끝났을 때 죽지 않았어요? 무슨 낯으로 뻔뻔하게 살아남아 동포의 얼굴을 봤냐구요. 당신 같은 사람이 아버지라니,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걸."
교육열이 대단한 교사는 어느 시대에도 있게 마련이지만, 어떤 식으로 가르쳤는지, 서방은 한숨을 쉬었다. 그러나 홍분해서 네가 뭘 안다고 그런 소릴 하느냐는 식의 말은 한마디도 못하고, 그저 슬쩍 얼버무리기만 했다.
"말이 났으니 말이지, 일본에서 태어나서 익힌 일본말이라 전우들 중 아무도 내가 조선 사람이라는 걸 모르겠지 싶었는데, 잘 생각해보면 내가 태어났을 때에는 조선도 한국도 없었으니까 그때 나는 순수한 일본인이었던 셈이지. 하긴 아무리 나라를 위해서라 해도 죽는 건 벌벌 떠는 겁쟁이 병사였지만."
봉당에 선 고이치는 신발을 벗어 아버지를 향해 내던졌다.(「그늘의 집」, 20쪽)
이후로 고이치는 따로 나가서 살게 되고, 도쿄의 전공투에 가담했다가 집단 린치로 죽게 되는 것이다. 고이치가 죽었을 때에도 서방은 아들이 바라크를 떠난 순간 이미 자신과의 관계는 끝이 났다고 주억거리며 애써 슬픔을 참는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단촌의 역사를 오롯이 담고 있는 신체를 가졌으면서 동시에 생활의 장에서는 그 영향력이 전무함을 비웃는 조롱의 뜻을 품고 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화석은 오랜 세월 땅 속에 묻혀있던 동식물의 흔적이 오롯이 새겨진 것을 일컫는다. 지금 여기에 없다고 해서 그 존재를 부정할 수 없도록 하는 한 생명체의 실존적 증거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그가 화석으로 불리는 것은 범주화·언어화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류에서 배제되는 자신을 굳건히 증명하고 있음에 대한 표명인 것이다. 이는 분명 어떤 '살아있음'에의 신호이다.

결국 이들 뼈다귀나 서방은 체제 내에서 규정해 놓은 어떤 범주에도 오롯이 복속되지 않는 상태에 위치한다. 이는 자발적 복종의 과정을 통해 강화되는 주권자-호모 사케르 구도에 전면적으로 대치되는 자기인식이다. 기존의 언어나 사회적 패러다임 속에서 자기실현 불가능성의 결핍된 상태에 집중한다면 이들은 영원히 헐벗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뼈다귀와 서방은, 언어화 될 수 없기 때문에 한없이 낯설고 외로운 자신의 현존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내어 스스로 자신의 범주를 확정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것은 전혀 새로운 자기 실천의 길로 연결된다. 뼈다귀나 서방은 그런 점에서 디아스포라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급진적인 자기 실천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뼈다귀가 양씨형제를 대상으로 죽음을 각오한 싸움을 치르는 것은 이러한 측면에서 고찰할 때 그 의미가 드러난다. 사건은 양씨형제의 아버지가 고모의 밤손님으로 왔다가 심장마비로 다 죽게 되면서 벌어진다. 뼈다귀와 료이치가 쓰러진 아버지를 데려온 것을 보고 놀란 양씨형제는 일의 진위를 알아보기도 전에 다짜고짜 그 둘을 때린다. 이 일은 뼈다귀의 논리에서 굴욕은 아니다. 그들의 행동은 죽어가는 아버지를 본 아들이 놀라서 할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후에 양씨형제의 여동생 '가나코'가 료이치를 찾아와 오빠들의 잘못을 빌고 뼈다귀 일족에 대한 동정심을 표한 사건이다. 이 일이 뼈다귀에게는 누군가의 동정심을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받은 굴욕의 사건이다. 이렇게 되었으니 뼈다귀는 가나코에게 폭력의 법칙을 수행해야할 의무가 생긴 것이고, 이는 곧 양씨형제와의 결전을 의미했다. 양씨형제가 아무리 강한 상대라 해도 뼈다귀는 자신의 법칙을 피할 수 없다. 왜냐하면 뼈다귀의 폭력 법칙은 응징의 대상 뿐 아니라 뼈다귀 자신도 그것에 복속되는 강력한 원칙성을 갖기 때문이다. 즉 뼈다귀가 휘두르는 폭력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나 어느 순간 이성을 잃었을 때 휘두르다가 상황이 나빠지거나 보다 큰 힘 앞에서는 멈출 수 있는 양씨형제들의 폭력과는 질이 다르다. 즉 이 결전에서 양씨형제는 주권자로서 호모 사케르인 뼈다귀에게 사회적으로 용인된 폭력을 휘두른다면, 뼈다귀는 '해야 한다'는 자신만의 폭력 원칙에 따라 행하는, 자신의 원칙 수행으로서의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그 폭력이 스스로를 해치더라도 뼈다귀에게 그것은 행해야 하는 당위이다.

> 삼촌(뼈다귀-인용자)은 문턱에 손을 대고 상체를 젖히고 나를 쳐다보고 있다. 얼굴을 새파랗게 질려 땀에 흠뻑 젖어 있었지만, 미소를 보내고 싶을 정도로 표정이 온화하다.
> "앉혀줘."
> 나(료이치-인용자)는 등뒤에서 삼촌을 껴안고 있는 힘을 다해 앉혔다.
> "너…… 어서 식칼, 가져와."
> 나는 온몸에 힘을 주고 주머니 속의 칼을 힘껏 쥐었다. 삼촌은 힘없이 웃었다.
> "난 안 죽어. 그렇지, 료이치?"
> 뒤를 돌아보고 밖으로 나갔다.
> 삼촌은 살아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이다.(「나쁜 소문」, 157쪽)

양씨형제의 위압적 폭력도 뼈다귀의 법체계를 정지시키지는 못한다. 위 인용문은 가나코의 생식기가 뼈다귀에 의해 심하게 다쳤음을 뒤늦게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안 양씨형제가 복수하기 위해 그에게 달려오는 것을 기다리는 장면이다. 기다리면서 뼈다귀는 양씨형제와의 일전을 두려워하고,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도망가지 않고 그들을 기다린다. 그것이 그의 원칙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그의 '폭력'은 그 자신에 의해서 강렬하게 작동하는 자신만의 질서이며, 그 어떤 법칙이나 권력에도 수렴되지 않고 그것에 선행한다. 그리고 이러한 절박하고 강렬한 실천 법칙 안에서 그는 일종의 입법자로서 세상의 주권자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다. 따라서 그의 법칙은 사회의 질서 정연한 폭력적 동일성 구조에 균열을 내는 새로운 성질을 갖는다.

양씨형제와의 대결로 뼈다귀 일족은 파탄에 이른다. 뼈다귀는 거세되고, 고모 역시 큰 수모를 당한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죽고 료이치는 집을 나가 사라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월이 지난 뒤 동생과 함께 마을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 사람들의 기억과 소문 속에서 여전히 존재한다. 양씨형제 일가족도 사건 이후 마을을 떠났지만 타지에서 병으로 죽은 뒤로 사람들의 뇌리에서 잊혀진 것에 비해 뼈다귀가 '나쁜 소문'으로 남게 되는 것은 그의 자기 실천적 강렬함에 의해 일종의 주권자로 존립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20]

---

20) 현월의 「나쁜 소문」을 이해할 때 '소문'의 의미는 '폭력'의 문제만큼이나 자주 언급되는 연구의 지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황봉모는 「현월(玄月)의 「나쁜 소문」-'소문'이라는 폭력-」(『일본연구』 제28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연구소, 2006)에서 공동체가 내부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특정 희생양을 지목하게 되는데, 이 작품에서 뼈다귀에 대한 '소문'이 일종의 집단적 유희가 되고, 뼈다귀가 희생되는 점을 지적한다.(291~292쪽) 강혜림은 「재일 신세대 문학의 탈민족적 글쓰기에 관한 연구: 유미리, 현월, 가네시로 문학을 중심으로」(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에서 이 '소문'을 인간 관계 사이의 단절과 소외에 의한 폐해라고 보는데(29쪽), 뼈다귀가 소문의 존재로 확장되는 방식은 소외나 단절과 같은 표면적 의미로는 담을 수 없는 많은 힘의 작용들이 공존하는 문제적 지점이라고 생각한다. 반면 윤정화는 앞의 논문에서 소문적 존재가 되는 것을 현월을 위시한 재일한인 3세대들이 그들의 작품에서 스스로를 모호한 존재의 '소문'으로 표상하여 아직 진행중인 새 세대의 자아 정체성의 생성을 의미한다고 보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서방의 경우에도 이러한 독자적 자기 입법의 논리가 실천되는 맥락이 존재한다. 이는 그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나 사람과 소통할 때 강한 책임감을 추동력으로 하는 그만의 관점을 견지하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그의 신체가 가진 급진성과 직결된다.

> 숙자의 저주는 사에키 씨까지 끌어들이고 말았지만 이 잘려나간 오른쪽 손목이 좀더 일찍 돈이 되어 있었더라면, 비참한 린치가 되풀이되는 일도, 화가 극도에 달한 순간 나가야마가 사에키 씨와 마주치는 일도 없지 않았겠는가?
>
> 너무 엉뚱한 생각이라고 일소해버리고 싶었지만, 그러나 관련성을 전혀 부정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왜냐하면 태어나서 지금까지 육십팔 년 동안 전쟁에 참가한 몇 달을 제외하곤 단 하루도 벗어난 적이 없는 이 집단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자신은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라고, 서방은 멈추지 않는 전율이 그 증거이기라도 하듯, 한층 더 몸을 움츠러뜨리며 자신을 다그쳤다.(「그늘의 집」, 77~78쪽)

사에키와의 만남은 황량한 서방의 삶에 유일하게 활기를 불어넣어주는 일이다. 아들이나 아내에게서도 느껴보지 못했던 살뜰한 교감과 위로의 정을 그는 사에키에게서 느끼고 있었다. 그렇기에 사에키는 서방에게 너무나 고맙고 소중한 존재였다. 그런데 하필이면 사에키가 집단촌에서 집단촌의 제왕 나가야마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앞서 보았듯

고, 그들이 진정한 의미의 소문적 존재가 되려 한다고 본다. 그러나 소문적 존재로 자리잡은 것 자체가 작품 속 인물의 현주소인 것이지, 그것이 덜 형성된 정체성이며 또한 그것이 곧바로 재일한인 3세대의 것으로 치환되는 것은 위험한 해석이다.(204~205쪽) 문재원은 앞의 논문에서 뼈다귀가 소문으로 존재하는 유령적 존재가 되는 것이 근대가 양산한 배제의 효과이며 동시에 근대를 위협하는 위치성을 내재한 존재방식(14쪽)이라고 지적한다. 종합해볼 때 결국 뼈다귀가 소문의 존재가 되는 것은 그의 삶이 어떤 강렬함으로 사람들에게 각인되는 맥락이 있음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것이 본고에서 말하고자 하는 뼈다귀와 같은 인물의 급진성이라 할 수 있겠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집단촌에서 나가야마에게 반기를 드는 것은 공동체의 법칙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그러나 서방은아들이 죽었을 때에도, 아내가 죽었을 때에도 움직이지 않던 몸을 이끌고 사에키를 찾기 위해 바라크를 뒤진다. 그리고 결국 사에키가 봉변을 당하게 되는 것이 집단촌의 역사가 총체적으로 마련한 암울한 결과였음을 통탄한다. 그가 이 사태에 책임감을 통감하는 것은 그가 이 바라크의 주인, 즉 주권자임을 스스로 인식함을 의미한다. 이는 그 논리의 옳고 그름이나 진위를 떠나 스스로가 부여한 그의 정체성이다.

> "너만은 용서 못 해!"
> 발걸음을 옮기던 서방은 등뒤에서 나가야마가 앵돌아진 듯 쳇 하며 혀를 차는 소리가 들리자, 맥 빠진 웃음을 터뜨렸다. 뿌리치듯이, 책임을 져야 한다, 도망치면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내가 나이기 위해서, 라고 자신을 다그치며 골목길을 마구 걸어갔다.(「그늘의 집」, 78~79쪽)

이러한 의식이 있었기에 서방은 사에키를 강간하고 나타난 나가야마에게 집단촌 내에서 그 누구도 하지 못하는 말, 절대 용서하지 못한다는 말을 내지를 수 있는 것이다. 이 순간 그는 집단촌 내에서 굳어버린 화석처럼 생명력 없는 유령이 아니라 집단의 최고 권력인 나가야마와 대립하는 위치로까지 고양된다. 그리고 이는 나가야마가 만든 폭력질서보다 더 거대한 폭력 질서인 일본 국가체제와도 대항할 수 있는 힘으로 이어진다.

> 서방은 경관이 밀치는 바람에 휘청거렸다. 그러나 다리에 힘을 주고 얼굴을 앞으로 내밀듯 고개를 드니, 까짓것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서 큰 소리로 웃고 싶어졌다. 파출소로 밀려들 이런저런 얼굴에는 더 이상 흥미가 없다. 오직 하나의 진실이 있을 뿐이다. 웃고싶은데도 심하게 떨리는 뺨을, 그보다 더 심하게 떨리는 어깨에 고개를 돌려 갖다대면서 서방은 그것을 깨달았다. (중략) 그 뒤를 이어 남자 세 사람이 나오는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 것을 본 순간, 서방은 자기도 모르게 몇 발짝 앞에 있는 경관의 다리에 달려들었다.(「그늘의 집」, 88쪽)

중국인 집단린치 사건으로 바라크에 온 경찰은 공권력을 등에 업고서 서방에게 집단촌 따위는 당장이라도 없앨 수 있다고 위협한다. 이 땅의 주인은 일본이지, 재일조선인과 중국인들이 뒤섞인 불법적 단체가 아니라는 말이다. 이러한 협박 속에서 서방이 느끼는 "오직 하나의 진실"이란 그가 자기를 실현하는 삶이다. 그것은 일본도 한국도 아닌, 자신의 역사가 서린 바라크를 책임지는 일이다. 그렇기에 그는 바라크의 존재를 위협하는 경찰에 온몸으로 맞서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제 그는 질서의 틀 속에서 멸시받고 동정받는 마이너리티가 아니라 그가 살고 있고 그를 설명해줄 수 있는 그의 공간을 책임지고 지키는 정치적 주체로서의 입장에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21]

이와 같이 「나쁜 소문」의 뼈다귀나 「그늘의 집」의 서방은 모두 한 집단 내에서 최하층의 마이너리티이자 정치적 호모 사케르이다. 그러나 뼈다귀는 자신만의 폭력적 질서 체제를 창출·유지함으로 해서 주권자로서의 면모를 스스로 구축하였고, 서방의 경우에는 사회적 책임감을 자신이 서 있는 바로 그곳에서 추구하여 권력과 피권력의 구조를 역전시키고 있다.

결과적으로 그들의 행위가 그 자체로 현명하다거나 사회적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 만큼의 역동적 폭을 보여준 것은 아니다. 때문에 그들의

---

21) 구재진은 앞의 논문에서 서방이나 나가야마, 서방의 아들 고이치를 모두 호모사케르로서 헐벗은 삶을 벗어나지 못하는 자들이며, 서방이 경관에게 필사적으로 대항하는 것은 집단촌 내 디아스포라들이 헐벗은 생명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입장을 취한다. 그러나 서방이 보여주는 책임감에 대한 자각은 억압적·폭력적 체제의 논리를 전유하여 그들만의 존재 의미를 획득한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인 의미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호모사케르라는 이름 하나로 이들 세 명을 모두 같은 이해의 선상에 놓기에 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맥락은 많이 다르지 않을까 한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구체적 행동 양상이 보편화 가능한 정당성을 가지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자기 인식 방식과 실천의 양상에서 급진적일 수 있는 지점은 그들이 보여주는 자기입법적 면모가 스스로를 '결핍'이 아니라 '충만'으로 인식하고 있음에 대한 가능성이다. 그들의 삶은 민족이나 국가, 국민, 혹은 체제 내 호모 사케르의 이름으로 소외되지 않는다. 즉 그들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지점은 그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소통하는 원칙과 과정의 문제이다.

자기의 원칙을 스스로 세우는 이 주인공들은 강력한 내부적 추동력으로 자신이 누구인가를 인식하고 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무언가를 바꾸거나 차지하려는 체제가 아니며 타인을 억압하거나 배제하지 않은 채 자기의 원칙에 충실함으로 드러난다. 그 원칙은 사회 체제가 제안하는 가치와 목적의 서열과 무관하고, 그렇기 때문에 체제의 질서에 균열을 가한다. 체제 내의 시각에서 그들은 단지 조용하고 특징이 없는 마이너리티로밖에는 포획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은 자기원칙의 균형 상태가 흔들릴 때에는 바로 그러한 방식, 즉 자기 원칙에 가장 충실한 모습으로 자기를 실현한다. 그래서 그 추동력은 오히려 적극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원칙을 실행하는 급진적 저항과, 체제의 억압적 가치를 무력화시키는 새로움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공동체의 언명에 복속되지 않는 이들 존재는 근대국민국가 체제에서 배제되는 방식으로 포함된 호모 사케르로서의 디아스포라를 집단 내 마이너리티 문제로 확장하였고, 그러한 호명과 무관하게 그 시간 그 자리를 살아내는 삶의 방식을 취하여 그 자체로 충만한 시공간을 획득해내고 있는 것이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4. 나오며

지금까지 현월의 대표작 「나쁜 소문」과 「그늘의 집」에서 작가가 제안하는 '인간 보편의 문제'를 구체적 작품 분석을 통해 밝혀 보았다. 그는 재일 한인 집단촌을 구성하고 있는 인물들의 관계도를 보여줌으로 해서 오늘날을 사는 인간이 국민의 공동체를 이룰 때 공통적으로 맞닥뜨리는 권력구도의 보편적 틀을 재구성했다. 그것은 주권자와 호모 사케르를 양산하는 내면화된 포함적 배제의 논리였고, 그 구도는 디아스포라 집단촌 내부와 외부 모든 곳에 촘촘하게 구축되어 개인을 옭아매고 있었다. 기존의 디아스포라 문학이 디아스포라 내부 집단을 객관적 시선으로 담지 못한 점이 있었다면 현월은 그러 한계를 넘어서 디아스포라의 문제의식을 인간 보편의 문제에 대한 하나의 스펙트럼으로, 즉 근대 국민국가의 실체를 보여주는 근본적 토대로 확장시킨 것이다. 이를 통해 3세대 디아스포라 문학에서 두드러지는 '지금' '여기'의 문제가 구체화되고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현월은 수직적·서열적으로 작동하는 근대 국민국가 시스템의 프랙탈 구조를 타파할 가능성을 집단 내 최하층민 마이너리티들의 강력한 자기원칙의 수행을 통한 기존 가치의 전복에서 찾고 있다. 그것은 국민국가 체제와 구성원들의 상호 작용 속에서 강화되는 주권자-호모 사케르의 포함적 배제 관계를 수평적 관계로 해체하는 새로운 요소를 전면화 한 인물의 등장이라 할 만하다. 사회적 틀을 초과하는 이와 같은 주요 인물들은 주권자도 호모 사케르도 아닌 채, 자신만의 방식으로 스스로를 인식하고 스스로의 행동 원칙을 정하기 때문에 주권자도 호모 사케르도 양산하지 않는다. 그들의 행동 방식은 목적이 없고, 목적이 없기에 수단이 되지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새로울 수 있는 것이다.

근대 국민국가적 틀을 중심으로 볼 때 디아스포라는 국가에 귀속되지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못하는 불완전하고 불충분한, 그래서 배제되는 방식으로 체제에 포함된 존재이다. 그러나 국민국가가 근대에 형성된 역사적인 틀임을 자각한다면, 이들 디아스포라가 국적 불명의 이유로 태생적인 수난을 받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고 단지 크나큰 불행이다. 왜냐하면 그들을 양산한 존재가 바로 국민국가 자체이기 때문이다. 즉 문제는 디아스포라가 아니라 국가인 것이다. 이러한 국민국가의 균열지점을 정확하게 증명하고 있는 디아스포라들이 그들의 문학 속에서 국민국가 체제의 한계를 근본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은 합당한 일일 것이다. 인간의 역사를 돌아보면 국가적 틀은 여전히 강력한 힘으로 사람들을 모으고 있고, 그 틀이 해체된다 하더라도 그보다 더 강력하게 개인의 정체성을 억압하는 사회적 기제들이 존재할 것이라는 묵시적 인상을 지우기 힘들다. 그 속에서 디아스포라의 시선과 의식으로부터 얻은 이러한 급진적 교훈을 우리는 소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월의 작품이 선취하고 있는 '인간 보편의 문제'는 그런 점에서 문학사적으로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이제 문제는 현월 문학의 주제의식을 통해 어떤 가능한 생산성의 길을 획득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그 생산성은 수평적 관계 형성을 보편화 할 수 있는 삶의 형태와 관련되지 않을까 한다. 왕성한 창작 활동을 하고 있는 현월의 작품 세계가 어떻게 확장할 것인지를 기대해 본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참고문헌

현월, 신은주・홍순애 옮김, 『나쁜 소문』, 문학동네, 2002.
현월, 신은주・홍순애 옮김, 『그늘의 집』, 문학동네, 2000.

강혜림, 「재일 신세대 문학의 탈민족적 글쓰기에 관한 연구: 유미리, 현월, 가네시로 문학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공진성, 『폭력』, 책세상, 2009.
구재진, 「국가의 외부와 호모 사케르로서의 디아스포라-현월의 「그늘의 집」 연구」, 『비평문학』 제32호, 한국비평문학회, 2009, 7~26쪽.
김태환, 「예외성의 철학-조르조 아감벤의 『호모 사케르: 통치 권력과 벌거숭이 삶』」, 『문학과 사회』 통권 제67호, 문학과지성사, 2004, 1281~1297쪽.
문재원, 「재일코리안 디아스포라 문학사의 경계와 해체-현월(玄月)과 가네시로 가즈키(金城一紀)의 작품을 중심으로-」, 『동북아문화연구』 제26집,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1, 5~21쪽.
서경식, 김혜신 옮김, 『디아스포라 기행-추방당한 자의 시선』, 돌베개, 2006.
이연숙, 「디아스포라와 국문학」, 『민족문학사연구』, 민족문학사학회, 2001, 55~71쪽.
이재봉, 「재일 한인 문학의 존재 방식」, 『한국문학논총』 제32집, 한국문학회, 2002, 361~393쪽.
윤정화, 「재일한인작가의 디아스포라 글쓰기 연구」,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장사선, 「재일 한민족 소설에서의 폭력」, 『현대소설연구』 제45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10, 327~356쪽.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장안순, 「현월의 「나쁜 소문」-폐쇄된 공동체에서 욕망과 폭력」, 『일본언어문화』, 한국일본언어문화학회, 2009, 297~317쪽.

정은경, 『디아스포라문학』, 이룸, 2007.

조르조 아감벤, 박진우 옮김, 『호모 사케르-주권권력과 벌거벗은 생명』, 새물결, 2008.

한나 아렌트, 김정환 옮김, 『폭력의 세기』, 이후, 2008.

황봉모, 「현월 「그늘의 집」-욕망과 폭력」, 『일어일문학연구』, 한국일어일문학회, 2005, 121~138쪽.

「현월(玄月)의 「나쁜 소문」-'소문'이라는 폭력-」, 『일본연구』 제28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연구소, 2006, 279~301쪽.

「현월의 「나쁜 소문」-료이치의 변화과정 추적을 통한 읽기」, 『일본어교육』 제35집, 한국일본어교육학회, 2006, 107~127쪽.

「현월(玄月) 문학 속의 재일 제주인」, 『외국문학연구』 제42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2011, 209~224쪽.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Abstract>

The Self-Identity Structure of the Nation-state and it's Possibility of crack
- The Study of Hyonyeol's "A Bad Rumor" and "The House in Shadow"

Lee, Hee-Won*

Hyonyeol is a leading Korean-Japanese novelist. His works embody the critical mind about the universal problem which is modern nation-state faces on the basis of the diasporan point of view. It is worth studying in this part. His representative works "A Bad Rumor" and "The House in Shadow" are well stylized this topic. This study consider the firm self-identity structure of nation-state carefully through these two works. And the problematic characters in these works who create their own principals show the possibility of crack which can threaten the nation-state's arbitrary structure.

The Korean town in the works embody the hierarchical ruling system which bring about Homo Sacer and sovereign. The system works tightly inside and outside of the town like fractal forms and restrains the village people. This situation reflect the operation principle of the national system which is constantly enlarged and reinforced.

Hyonyeol looks forward to the possibility to break out this fractal structure and overturn the existing value by the minorities who live

* Dong-eui University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by their own rules. ‘Bone’ of the “A Bad Rumor” and ‘son-in-law’ of the “The House in Shadow” are two representative figures. They externalize the new elements which dissolve the hierarchy between Homo Sacer and sovereign. Their behavior does not have a purpose, so need not to be a means of purpose, and as such, they are new.

Through this characters Hyonyeol tries to expose the illogicality of the system of the modern nationality and search for a creative potential.

Key Words : Hyonyeol, diaspora, nation-state, fractal forms of power, one's own rule.

▌논문접수 : 2012년 3월 15일
▌심사완료 : 2012년 3월 31일
▌게재확정 : 2012년 4월 10일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